

# 전공분야 학회와 관련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학술지 발행의 성공사례 분석 \*

## An Analysis on the Successful Case of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cholarly Society and its Related Organization

오 동 근(Dong-Geun Oh)\*\*

여 지 숙(Ji-Sook Yeo)\*\*\*

박 상 후(Sang-Hoo Park)\*\*\*\*

### 〈목 차〉

I. 서론	2. 편집진 분석
II. 학술지 발행 유형 및 국제화 특징	3. 인용분석
III. 학술지 사례 분석: OSJ의 사례를 중심으로	IV.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운영방안 제안
1. 게재논문 및 저자분석	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발행의 한 모범사례로, 전공분야 학회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발행하고 있는 OSJ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OSJ의 게재논문, 편집진, 인용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의 유사한 사례와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의 게재 및 특별호 발간 등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국제학술지, 학술지 국제화, OSJ, Ocean Science Journal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the OSJ (Ocean Science Journal) intensively as an example of best practice which has been published by cooperative efforts between scholarly society and its related organization and based on the results suggests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s.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shed articles of each number, the editorial board members, and citation of the journals, and compares some related aspects with other similar cases in foreign countries. It also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successful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ournal, including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publishing articles which can be cited more, publishing special issues with the topics interested in from the readers.

Keywords: International journal,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 OSJ, Ocean Science Journal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위탁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오동근 외(2015). JISTaP의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SCCOPUS) 등재를 위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의 내용 중 일부를 추가분석하고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제1저자 겸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공동저자)

\*\*\*\*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강사(lis98@hanmail.net)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21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67-186,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167]

## I. 서론

전공분야의 학회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활동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모임이다. 이 학회에서는 대체로 학회회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회지를 발간하며, 학회 자체적으로 원고의 수집 및 투고, 심사, 발간, 배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자들에게 국제적인 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내학회지들이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SCI나 SCOPUS와 같은 국제적인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더 큰 성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실제로 국내 국립대학의 교수업적평가에서 국제적인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저널의 경우 국내등재저널에 비해 130%~200%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김왕준, 윤홍주, 나민주 2012, 156).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연구자들을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저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며, 연구결과를 이들 저널에 발표하고자 하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국내학회지들이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자 하는 활동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양 영어권을 중심으로 이미 편성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국내학회지가 등재되고자 할 경우 겪게 되는 문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학회에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기 전에 그 등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장기간의 집중적인 노력과 지원이 비영리목적의 연구활동을 하는 학회에서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와 함께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은 학회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국내 학회가 학회지를 국제적인 저널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 학회발간 학술지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학술지로 성공한 *Ocean Science Journal*(OSJ)을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OSJ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학회가 2005년에 공동 창간한 해양과학분야 국제학술지로 2010년에 SCOPUS에 등재되었고, 2014년 해양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SCIE에 등재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SCOPUS와 해당 저널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SCI 등재 저널에 대한 정보는 JCR을 통해 수집한 후 엑셀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OSJ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학회지의 국제학술지로의 발전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I. 학술지 발행 유형 및 국제화 특징

학술지의 발행기관은 학회, 협회, 상업출판사, 비영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특히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비율이 국내학술지에서는 가장 크며, 이것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저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학술지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학술지로 선정 유지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발행기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발행기관 분석(2016)

발행기관	수 량	비 율
학 회	428	71.93
연구소(원)	135	22.68
단 체*	25	4.21
대 학	4	0.68
협(의)회	3	0.50
합 계	595	100.00

\*입법기관, 위원회, 학술원, 문화원, 번역원, 포럼 등

2016년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저널로 신규 또는 유지된 학술지 595종 중 428종 (71.93%)이 학회지이다. 국내 학회는 일반적으로 회장의 임기에 따라 학회 운영주체가 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회운영 방식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학술지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술지의 국제화와 관련한 특징<sup>1)</sup> 중 저자의 국가별 분포는 주로 작은 국가(small country)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Zitt and Bassecoulard 1998). 이미 서유럽 및 북미의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학술지 환경에서, 이것은 비유럽 및 비북미 비영어권 국가에서 국제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저자로부터의 논문 수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발간, 배포되는 국내학회지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저자와 독자들에게 존재를 알리고 원고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발간되는 영문 학술지에서는 국제적인 저자의 논문 비율이 높은 저널의 IF(impact factor)가 낮고, 반면에 국제적인 저자의 논문 비율이 낮은 저널의 IF가 높은 현상

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신은자, 최희윤, 서태설(2015)과 오동근, 여지숙, 박상후(2015)의 논문 참조.

이 나타났다(Wang, Wang, and Weldon 2007). 이러한 현상은 중국 국내 저널로서 국제성과 배포의 한계, 낮은 IF 등으로 인한 낮은 국제적 원고 비율(20% 미만) 또는 고품질 원고학보의 어려움으로 낮은 국제화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내학회지의 국제화를 추진할 때 역시 이러한 현상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Piocuda 등(2015)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IF가 높은 7개의 심리학 저널을 대상으로 1950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적인 저자의 증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저자의 증가보다 국제적인 저자가 더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는 국내학회지가 국제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전 세계적인 배포 및 이용, 접근의 용이성 등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ang과 Lu(2009)는 중국의 외과저널의 국제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중국저널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영문발간 및 국제적인 저자의 모집, 그리고 국제적인 대규모 출판사와의 협력으로 국내외적으로 저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양 영어권에서 발간되는 저널보다 더 많은 장애요인을 가진 비서양 비영어권 국가에서 발간되는 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국내학회지가 국제학술지로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널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례로 분석된 저널의 경우로 한정될 수도 있으나, 국내학술지 환경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시도적 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학술지 사례 분석: OSJ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게재논문 및 저자분석

*Ocean Science Journal*(OSJ)은 1966년 창간한 『한국해양학회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학회가 2005년에 공동 창간한 해양과학분야 국제학술지이다. OSJ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로 등재되었으며,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등재되었다. 2010년에 SCOPUS에 등재 되었으며, 2014년 해양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SCIE에 등재되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2016).

OSJ는 SCIE의 MARINE & FRESHWATER BIOLOGY와 OCEANOGRAPHY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범주에 등재된 저널들의 발행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가장 많은 발행기관 유형은 출판사로, 특히 상업출판사가 두 범주 모두 가장 많았다.

〈표 2〉 SCIE MARINE & FRESHWATER BIOLOGY와 OCEANOGRAPHY 범주 등재 저널의  
발행 기관 유형(2015)

유형	주제범주		MARINE & FRESHWATER BIOLOGY	OCEANOGRAPHY	합계	
	상업	출판사			102	113
비영리	상업	63	39	3	102	113
	대학	5	3	8	113	
	비영리	2	1	3	113	
학회/협회		12	7		19	
기관/단체		15	8		23	
대학		6	3		9	
합계		103	61		164	

발행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저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었다. OCEANOGRAPHY에서는 중국이 다섯 번째로 많은 3개의 저널을 발간하고 있었다. 이 두 범주를 통합하여 보면, 상위 5개 국가가 모두 북미 및 서유럽에서 발간하는 저널이었다. 〈표 3〉은 SCIE의 MARINE & FRESHWATER BIOLOGY와 OCEANOGRAPHY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의 발행국가별 분석이다.

〈표 3〉 SCIE MARINE & FRESHWATER BIOLOGY와 OCEANOGRAPHY 범주 등재 저널의  
발행 국가별 분석

MARINE&FRESHWATER BIOLOGY			OCEANOGRAPHY			합계		
국가명	빈도	%	국가명	빈도	%	국가명	빈도	%
USA	24	23.3	USA	16	26.2	USA	40	24.4
England	20	19.4	England	13	21.3	England	33	20.1
Germany	17	16.5	Netherlands	7	11.5	Germany	21	12.8
Netherlands	12	11.7	Germany	4	6.6	Netherlands	19	11.6
France	5	4.9	China	3	4.9	France	5	3.0
기타	25	24.3	기타	18	29.5	기타	46	28.0
합계	103	100.0	합계	61	100.0	합계	164	100.0

OSJ는 SCIE에서 MARINE & FRESHWATER BIOLOGY와 OCEANOGRAPHY 두 범주에 속해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의 IF와 순위는 〈표 4〉와 같으며, SCOPUS에서 OSJ의 SJR, IPP, SNIP는 〈표 5〉와 같다.

〈표 4〉 OSJ의 SCIE IF(2014–2015)

Subject Categories	연도 Citation Inf.	2014		2015	
		순위	IF	순위	IF
MARINE & FRESHWATER BIOLOGY		46 / 103	1.605	94 / 103	0.500
OCEANOGRAPHY		27 / 61	1.605	57 / 61	0.500

〈표 5〉 OSJ의 SJR, IPP, SNIP(2007–2015)

연도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SJR*	0.315	0.685	0.348	0.354	0.278	0.189	0.155	0.177	0.142
IPP**	0.836	1.466	1.079	0.955	0.681	0.361	0.185	0.161	0.097
SNIP***	0.472	1.028	0.594	0.796	0.404	0.250	0.280	0.508	0.089

\* SJR (SCImago Journal Rank): 저널의 명망(prestige)에 의해 가중치 부여. 저널의 주제 분야, 품질, 평판은 저널의 인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IPP(Impact per Publication): 저널의 계재 논문의 인용비율로 측정

\*\*\* SNIP(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 한 주제분야에서의 전체 인용수에 근거를 둔 인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맥락과 관련된 인용 영향 측정

OSJ는 SCIE와 SCOPUS에서 2014년이 가장 높은 수치 및 순위를 보였으며, 2014년에 SCIE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SCIE 등재 이후에는 두 색인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수치가 하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OSJ는 계간으로 연 4회 발간되고 있으며, 창간 이후 연도별 계재 논문수는 〈표 6〉과 같다. 창간 이후 7년 동안 권당 계재 논문수는 25편에서 31편 정도였지만, 2012년부터는 권당 40 편 이상의 논문을 계재하고 있다. 호당 계재 논문은 최저 5편에서부터 최고 34편에 이르고 있어 호당 계재 논문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연간 계재 논문수가 많아진 2012년부터 SCOPUS의 IPP, SNIP가 이전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OSJ에 투고한 저자들(공동저자 및 중복저자 포함)의 국가별 분포를 알아보면 〈표 7〉과 같다. OSJ에 계재한 논문의 저자는 모두 33개국 1,563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저자는 한국 저자로 1,058명(67.7%)이다. 한국저자 이외의 국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66명), 인도(64명), 러시아(59명), 중국(47명), 미국(49명) 등의 순으로, 전체 저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정도이다.

〈표 6〉 OSJ 게재 논문 수

연도	권	호	논문 수						권당 논문 수
			Article	Editorial	Note	Original Paper	Review	계	
2005	40	1	.	.	.	4	2	6	24
		2	.	.	.	5	.	5	
		3	.	.	.	7	.	7	
		4	.	.	.	6	.	6	
2006	41	1	.	.	.	5	.	5	31
		2	.	.	.	6	.	6	
		3	.	.	.	7	.	7	
		4	.	.	.	13	.	13	
2007	42	1	.	.	.	6	.	6	26
		2	1	.	.	6	.	7	
		3	.	.	.	6	.	6	
		4	.	.	.	7	.	7	
2008	43	1	.	.	.	8	.	8	25
		2	.	.	.	6	.	6	
		3	.	.	.	5	.	5	
		4	6	.	.	.	.	6	
2009	44	1	5	.	.	.	1	6	22
		2	4	.	1	.	.	5	
		3	5	.	.	.	.	5	
		4	4	.	2	.	.	6	
2010	45	1	4	.	1	.	.	5	23
		2	4	1	1	.	1	7	
		3	5	.	.	.	.	5	
		4	4	.	1	.	1	6	
2011	46	1	3	.	1	.	.	4	25
		2	7	.	.	.	.	7	
		3	4	.	2	.	.	6	
		4	6	.	2	.	.	8	
2012	47	1	5	.	1	.	.	6	47
		2	6	1	2	.	.	9	
		3	17	1*	3	.	.	21	
		4	7	.	2	.	2	11	
2013	48	1	9	1*	.	.	1	11	37
		2	8	.	1	.	.	9	
		3	7	.	.	.	.	7	
		4	10	.	.	.	.	10	
2014	49	1	6	.	2	.	.	8	45
		2	5	2	.	.	1	8	
		3	16	1*	.	.	.	17	
		4	11	.	.	.	1	12	
2015	50	1	7	.	1	.	1	9	68
		2	31	1*	1	.	1	34	
		3	12	.	.	.	.	12	
		4	12	.	.	.	1	13	
2016	51	1	12	.	1	.	.	13	26
		2	7	.	5	.	1	13	
합 계			250	8	30	97	14	399	399

\* Guest Editorial

〈표 7〉 OSJ 국가별 게재 논문 저자수

논문 수: 356 (40권1호 ~ 51권 2호)

연번	국가명	빈도	비율(%)
1	Korea	1,058	67.7
2	Japan	66	4.2
3	India	64	4.1
4	Russia	59	3.8
5	China	57	3.6
6	USA	49	3.1
7	Malaysia	27	1.7
8	Thailand	18	1.2
9	Vietnam	15	1.0
10	Iran	14	0.9
11	Mexico	12	0.8
12	Australia	11	0.7
13	Indonesia	11	0.7
14	Jordan	11	0.7
15	Singapore	11	0.7
16	Taiwan	10	0.6
17	Egypt	9	0.6
18	Netherlands	8	0.5
19	Italy	7	0.4
20	Bangladesh	6	0.4
21	Nigeria	6	0.4
22	Belgium	5	0.3
23	Canada	5	0.3
24	France	4	0.3
25	Philippines	4	0.3
26	Germany	3	0.2
27	Norway	3	0.2
28	Turkey	3	0.2
29	Brazil	2	0.1
30	UK	2	0.1
31	New Zealand	1	0.1
32	Saudi Arabia	1	0.1
33	Uruguay	1	0.1
합계		1,563	100.0

## 2. 편집진 분석

OSJ는 2005년 공동 창간 당시 국내인사 12명(내부 7명, 외부 5명), 국외인사 4개국 6명으로 18명의 편집진을 구성하였다. 이후 2008년 국내 편집위원 중 국내인사 6명이 빠지고 국내 9명, 국외 1명을 추가하여 4명의 편집위원이 추가되었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며, 2011년 국외 편집위원을 3명 추가하면서 국가를 다양화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편집 위원 중 국내인사 5명이 빠지고 14명(국내 11명, 국외 3개국 3명)이 추가되면서, 다양해진 국외 편집위원의 수를 증가시켜 그 총을 더 두텁게 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OSJ의 편집진은 모두 8개국 37명으로 이 중 국내인사가 23명(62.2%), 국외인사가 14명(37.8%)이다. OSJ의 연도별 편집진 변동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OSJ 연도별 편집진 변동 현황

연번	권(호)	발행년	편집위원회											인원 증감	
			총 인 원	국내			국외								
				계	내부	외부	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영국	프랑스	홍콩	
1	40(1)	2005	18	12	7	5	6	2	2	1	1	0	0	0	
2	40(2)		18	12	7	5	6	2	2	1	1	0	0	0	0
3	40(3)		18	12	7	5	6	2	2	1	1	0	0	0	0
4	40(4)		18	12	7	5	6	2	2	1	1	0	0	0	0
5	41(1)	2006	18	12	7	5	6	2	2	1	1	0	0	0	0
6	41(2)		18	12	7	5	6	2	2	1	1	0	0	0	0
7	41(3)		18	12	7	5	6	2	2	1	1	0	0	0	0
8	41(4)		18	12	7	5	6	2	2	1	1	0	0	0	0
9	42(1)	2007	18	12	7	5	6	2	2	1	1	0	0	0	0
10	42(2)		18	12	7	5	6	2	2	1	1	0	0	0	0
11	42(3)		18	12	7	5	6	2	2	1	1	0	0	0	0
12	42(4)		18	12	7	5	6	2	2	1	1	0	0	0	0
13	43(1) <sup>1)</sup>	2008	22	15	6	9	7	3	2	1	1	0	0	0	+4
14	43(2)		22	15	6	9	7	3	2	1	1	0	0	0	0
15	43(3)		22	15	6	9	7	3	2	1	1	0	0	0	0
16	43(4)		22	15	6	9	7	3	2	1	1	0	0	0	0
17	44(1) <sup>2)</sup>	2009	21	14	6	8	7	3	2	1	1	0	0	0	-1
18	44(2)		21	14	6	8	7	3	2	1	1	0	0	0	0
19	44(3)		21	14	6	8	7	3	2	1	1	0	0	0	0
20	44(4)		21	14	6	8	7	3	2	1	1	0	0	0	0
21	45(1) <sup>3)</sup>	2010	22	15	6	9	7	3	2	1	1	0	0	0	+1
22	45(2)		22	15	6	9	7	3	2	1	1	0	0	0	0
23	45(3)		22	15	6	9	7	3	2	1	1	0	0	0	0
24	45(4)		22	15	6	9	7	3	2	1	1	0	0	0	0
25	46(1)	2011	22	15	6	9	7	3	2	1	1	0	0	0	0
26	46(2) <sup>4)</sup>		23	15	6	9	8	3	2	1	1	1	0	0	+1
27	46(3) <sup>5)</sup>		26	15	6	9	11	3	3	1	1	1	2	0	+3
28	46(4)		26	15	6	9	11	3	3	1	1	1	2	1	0

29	47(1) <sup>6)</sup>	2012	35	21	6	15	14	3	4	1	1	2	2	1	+9		
30	47(2)		35	21	6	15	14	3	4	1	1	2	2	1	0		
31	47(3)		35	21	6	15	14	3	4	1	1	2	2	1	0		
32	47(4) <sup>7)</sup>		37	23	6	17	14	3	4	1	1	2	2	1	2		
33	48(1)	2013	자료 없음														
34	48(2)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35	48(3)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36	48(4)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37	49(1)	2014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38	49(2)		자료 없음														
39	49(3)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40	49(4)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41	50(1)	2015	37	23	6	17	14	3	4	1	1	2	2	1	0		
42	50(2)		자료 없음														
43	50(3)		35	21	5	16	14	3	4	1	1	2	2	1	-2		
44	50(4)		자료 없음														
45	51(1)	2016	자료 없음														
46	51(2) <sup>8)</sup>		37	23	5	18	14	3	4	1	1	2	2	1	+2		

1) EIC 교체(내부→서울대학교), 편집위원 6명(한국) 빠짐  
(내부 4명, 외부 2명), 편집위원 10명 영입(국내 9명(내부 3명, 외부 6명), 미국 1명)  
2) 1명(한국(외부)) 빠짐  
3) 1명(한국(외부)) 영입  
4) 1명(국외(영국)) 영입  
5) 3명(국외(일본 1명, 프랑스 2명)) 영입

6) EIC 교체(서울대학교→내부), 편집위원 5명(한국) 빠짐  
(내부 3명, 외부 2명), 5명 중 1명이 EIC로 이동, 편집위원 14명 영입(국내 11명(내부 2명, 외부 9명), 국외 3명(일본 1명, 영국 1명, 홍콩 1명))  
7) 2명(한국(외부)) 영입  
8) 2명(한국(외부)) 영입

저널의 발간 및 운영 정책은 그 편집진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편집진은 저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SJ의 편집진은 2016년 8월 현재 8개국 1명의 EIC와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3명(62.2%)로 가장 많았다. 국외 편집위원(14명)의 경우 대륙별로는 아시아(7명)와 북미(3명), 서유럽(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OSJ의 편집진의 국가별 본포는 <표 9>와 같다.

&lt;표 9&gt; OSJ 편집진의 국가별 분포(2016년 8월 기준)

연 번	국 가	편집진 수	비율(%)	누적 비율(%)
1	한국	23	62.2	62.2
2	일본	4	10.8	73.0
3	미국	3	8.1	81.1
4	영국	2	5.4	86.5
5	프랑스	2	5.4	91.9
6	대만	1	2.7	94.6
7	중국	1	2.7	97.3
8	홍콩	1	2.7	100.0
합계		37	100.0	-

### 3. 인용분석

OSJ의 연도별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피인용은 논문이 출판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후 피인용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판 첫해에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록논문(375편) 중 인용된 논문은 239편으로 수록논문 중 약 63.7%가 한번이상 인용되었다. 특히 2010년 SCOPUS에 등재된 이후에 출판된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가 이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발간된 45권 2호와 2012년 발간된 47권 3호는 각각 누적 인용횟수가 164회, 214회로 가장 많았다. 이 두호의 경우 수록논문 중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었으며(45권 2호는 7편 중 6편, 47권 3호는 21편 중 20편<그림 1> 참조), 특히 45권 2호의 특정 논문 한편은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간에 걸쳐 30회 이상 인용되었다(총 145회 피인용). 그리고 47권 3호는 특정 주제('GOCI Data Processing and Ocean Applications')를 가진 특별호로 이 호의 수록논문 21편 중 14편이 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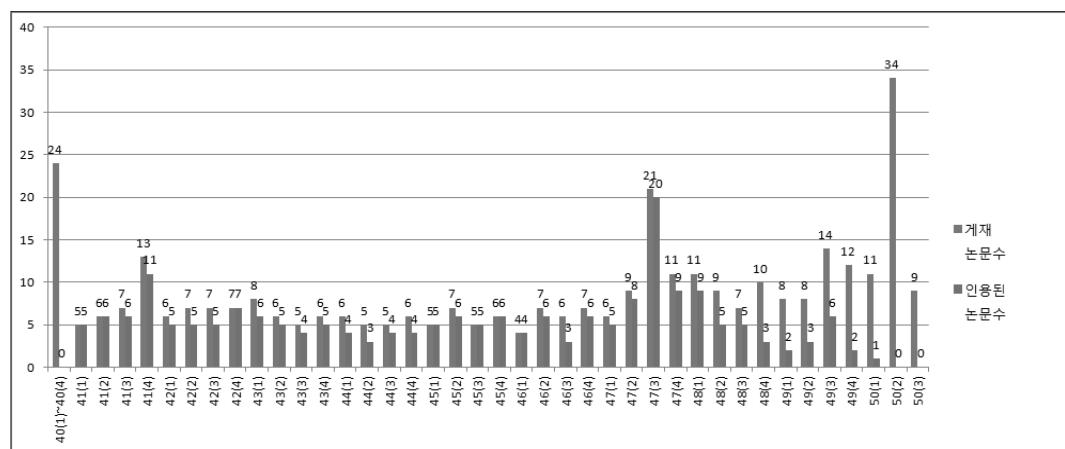
&lt;표 10&gt; OSJ 피인용 횟수(2006-2016)

2016. 8. 19. 기준

발행 연도	권 (호)	수록 논문 수	인용 논문 수	피인용 횟수												
				<'06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2006	41(1)	5	5	0	0	2	1	3	1	0	1	3	4	3	1	19
	41(2)	6	6	0	1	0	2	0	0	1	7	3	4	5	1	24
	41(3)	7	6	0	0	3	2	1	1	2	6	3	2	11	2	33
	41(4)	13	11	0	0	1	3	4	5	4	7	4	6	7	3	44
2007	42(1)	6	5	0	0	1	0	0	5	3	3	5	8	5	4	34
	42(2)	7	5	0	0	0	1	2	1	4	2	5	2	4	0	21
	42(3)	6	6	0	0	0	2	1	3	3	2	3	6	5	3	28
	42(4)	7	7	0	0	0	5	1	2	4	4	2	3	3	0	24
2008	43(1)	8	6	0	0	0	0	1	8	8	5	5	5	5	0	37
	43(2)	6	5	0	0	0	1	2	2	4	1	7	1	3	0	21
	43(3)	5	4	0	0	0	0	0	3	1	3	2	2	4	1	16
	43(4)	6	5	0	0	0	0	1	0	7	3	3	1	4	0	19
2009	44(1)	6	4	0	0	0	0	0	3	0	3	4	5	3	0	18
	44(2)	5	3	0	0	0	0	0	1	2	1	2	0	2	2	10
	44(3)	5	5	0	0	0	0	0	0	2	6	0	5	3	3	19
	44(4)	6	5	0	0	0	0	0	1	4	1	1	3	1	1	12
2010	45(1)	5	5	0	0	0	0	0	0	0	7	3	2	7	1	20
	45(2)	7	6	0	0	0	0	0	0	12	28	35	35	34	20	164
	45(3)	5	5	0	0	0	0	0	0	5	8	6	10	3	2	34
	45(4)	6	6	0	0	0	0	0	0	2	1	2	10	8	1	24

	46(1)	4	4	0	0	0	0	0	0	1	1	0	4	2	3	11	
2011	46(2)	7	7	0	0	0	0	0	0	0	4	8	9	10	5	36	
	46(3)	6	3	0	0	0	0	0	0	0	1	8	10	5	0	24	
	46(4)	8	8	0	0	0	0	0	0	0	5	6	10	9	5	35	
	47(1)	6	5	0	0	0	0	0	0	0	1	6	7	5	3	22	
2012	47(2)	9	8	0	0	0	0	0	0	0	2	8	13	5	3	31	
	47(3)	21	21	0	0	0	0	0	0	0	13	27	73	56	45	214	
	47(4)	11	10	0	0	0	0	0	0	0	0	3	14	6	5	28	
	48(1)	11	9	0	0	0	0	0	0	0	0	7	13	12	9	41	
2013	48(2)	9	5	0	0	0	0	0	0	0	0	2	13	11	5	31	
	48(3)	7	5	0	0	0	0	0	0	0	0	0	7	2	4	13	
	48(4)	10	6	0	0	0	0	0	0	0	0	0	3	4	4	11	
	49(1)	8	3	0	0	0	0	0	0	0	0	0	2	2	1	5	
2014	49(2)	8	5	0	0	0	0	0	0	0	0	0	0	2	7	6	15
	49(3)	17	7	0	0	0	0	0	0	0	0	0	1	9	4	14	
	49(4)	12	4	0	0	0	0	0	0	0	0	0	0	0	5	3	8
	50(1)	9	3	0	0	0	0	0	0	0	0	0	0	0	2	3	5
2015	50(2)	34	7	0	0	0	0	0	0	0	0	0	0	2	9	11	
	50(3)	12	5	0	0	0	0	0	0	0	0	0	0	0	5	5	
	50(4)	13	2	0	0	0	0	0	0	0	0	0	0	0	2	2	
2016	51(1)	13	2	0	0	0	0	0	0	0	0	0	0	0	2	2	
	52(2)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375	239	0	1	7	17	16	36	69	126	173	295	274	171	1,185	

OSJ의 각 호별 게재논문 중 인용된 논문수를 분석하면, 41권 1호(2006)부터 48권 4호(2013)까지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에 이르는 논문들이 한번 이상 인용되었다. OSJ의 각 호별 게재논문수 및 피인용 논문수는 <그림 1>과 같다.



&lt;그림 1&gt; OSJ 각 호별 피인용 논문수

OSJ를 가장 많이 인용한 저널은 OSJ이었으며, 이는 OSJ를 1번 이상 인용한 전체 저널의 8.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OSJ를 많이 인용한 저널은 네덜란드 저널인 *Harmful Algae*<sup>o</sup>이며, 그 뒤로 미국저널인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와 영국의 *Marine Pollution Bulletin*<sup>o</sup> 있다. 4번째로 OSJ를 많이 인용한 저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간하는 또 다른 학술저널인 *Ocean and Polar Research*(OPR)이다. OSJ의 자기인용(8.9%)과 OPR이 OSJ를 인용한 것(2.7%)을 합하면 전체 OSJ의 피인용횟수 중 11.6%를 차지한다. OSJ를 인용한 저널은 <표 11>과 같다.

&lt;표 11&gt; OSJ를 인용한 저널 현황

2016. 8. 19. 기준

인용한 저널명	발행국가	인용횟수	비율(%)	누적비율(%)
Ocean Science Journal	Korea	99	8.4	8.4
Harmful Algae	USA	56	4.7	13.1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USA	41	3.5	16.5
Marine Pollution Bulletin	England	41	3.5	20.0
Ocean and Polar Research	Korea	32	2.7	22.7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USA	22	1.9	24.6
Journal of Coastal Research	USA	19	1.6	26.2
Acta Oceanologica Sinica	China	19	1.6	27.8
PLoS ONE	USA	18	1.5	29.3
Journal of Eukaryotic Microbiology	USA	18	1.5	30.8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England	17	1.4	32.2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USA	17	1.4	33.7
Oceanography of the East Sea(Japan Sea)*	Switzerland	17	1.4	35.1
Optics Express	USA	16	1.4	36.5
Progress in Oceanography	England	13	1.1	37.6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England	12	1.0	38.6
Journal of Oceanography	Netherlands	12	1.0	39.6
Remote Sensing	USA	11	0.9	40.5
Continental Shelf Research	England	11	0.9	41.4
Russian Journal of Marine Biology	Russia	11	0.9	42.4
Marine Micropaleontology	Netherlands	10	0.8	43.2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Netherlands	10	0.8	44.1
Algae	Korea	10	0.8	44.9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Germany	10	0.8	45.7
Journal of Experimental Marine Biology and Ecology	Netherlands	9	0.8	46.5
Shengtai Xuebao/ Acta Ecologica Sinica	China	9	0.8	47.3
Estuaries and Coasts	USA	8	0.7	47.9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England	8	0.7	48.6
Journal of Marine Systems	Netherlands	8	0.7	49.3
Guangxue Xuebao/Acta Optica Sinica	China	8	0.7	50.0
Biogeosciences	Germany	8	0.7	50.6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England	8	0.7	51.3
소계(8회이상 인용저널 32종)		608	51.3	-
기타(1-7회 인용 저널 324종)		577	48.7	-
합계(전체 저널 356종)		1,185	100.0	-

\* 단행본

OSJ를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는 한국의 저자들로 전체 OSJ를 인용한 저자들의 46.2%를 차지하였다. OSJ를 인용한 저자의 소속 국가는 <표 12>와 같다.

<표 12> OSJ를 인용한 저자의 소속 국가

2005년~2015년

인용한 저자의 소속 국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Korea	405	46.2	46.2
China	109	12.4	58.6
USA	80	9.1	67.7
India	33	3.8	71.5
Japan	27	3.1	74.6
Russia	23	2.6	77.2
Italy	19	2.2	79.4
Canada	17	1.9	81.3
Australia	13	1.5	82.8
Belgium	13	1.5	84.3
Germany	13	1.5	85.7
France	11	1.3	87.0
Mexico	10	1.1	88.1
Brazil	9	1.0	89.2
Spain	9	1.0	90.2
UK	8	0.9	91.1
Viet Nam	7	0.8	91.9
Iran	6	0.7	92.6
Taiwan	6	0.7	93.3
Egypt	5	0.6	93.8
Norway	5	0.6	94.4
Turkey	5	0.6	95.0
Argentina	4	0.5	95.4
Denmark	4	0.5	95.9
Poland	4	0.5	96.4
Jordan	3	0.3	96.7
Malaysia	3	0.3	97.0
Netherlands	3	0.3	97.4
Tunisia	3	0.3	97.7
Chile	2	0.2	97.9
Costa Rica	2	0.2	98.2
Greece	2	0.2	98.4
Hong Kong	2	0.2	98.6
Israel	2	0.2	98.9
Pakistan	2	0.2	99.1
Finland	1	0.1	99.2
Indonesia	1	0.1	99.3
Philippines	1	0.1	99.4
Portugal	1	0.1	99.5
Puerto Rico	1	0.1	99.7
Saudi Arabia	1	0.1	99.8
South Africa	1	0.1	99.9
Tanzania	1	0.1	100
합계	877	100.0	-

\* 877개의 논문 중에서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첫 번째 저자만 추출

#### IV.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운영방안 제안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회와 연구기관 공동발간 저널로, SCOPUS 및 SCIE에 등재되어 국제적인 학술지로 성장한 OSJ를 대상으로, 이 두 기관의 협력의 결과로 발간한 학술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술지의 국제화와 관련된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SJ가 등재되어 있는 SCIE의 해당 범주에서 발행기관 유형별, 발행 국가별 분석 결과, OSJ는 북미 및 서유럽 국가의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비영어권의 학회 및 연구기관이 공동발행하고 있는 OSJ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OSJ는 창간 이전단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학술지 발간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도서관은 OSJ의 창간준비단계부터 학술지의 기본적인 편집형식 결정, 논문심사과정 개발, 논문투고 및 참고문헌작성방법의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 참여하였으며, 창간 이후에는 해양과학도서관이 기술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종엽 2013, 38). 그리고 상업적인 출판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2009년에는 Springer와 전략적 제휴하여 국제공동출판 및 해외배포 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국내 해양학분야로는 최초로 SCIE에 등재되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F가 SCIE에 등재된 2014년(1.605)보다 2015년(0.500)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년간의 수치이지만 SCI의 등재 이후 국제학술지로서 성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OSJ의 계재 논문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계재 논문수가 많아진 2012년부터 SCOPUS의 IPP, SNIP가 이전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발간 학회지가 원고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OSJ의 편집진을 분석한 결과, OSJ의 편집진은 계재논문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편집진의 수를 대폭 늘였으며, EIC를 교체하고 국내 및 국외 편집진을 대거 영입하였다. OSJ의 편집진은 2016년 8월 현재 8개국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3명(62.2%)로 가장 많았다. 국외 편집위원(14명)의 경우 대륙별로는 아시아(7명)와 북미(3명), 서유럽(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미 및 유럽 영어권 국가의 편집위원을 다수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널의 발간 및 운영 정책은 그 편집진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편집진은 저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SJ의 이러한 편집위원 구성은 저널의 국제화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OSJ 수록논문에 대한 인용분석 결과, OSJ는 전체 수록논문(375편) 중 239편 (63.7%)이 한번 이상 인용되었고, 각 호별 게재논문 중 인용된 논문수를 분석하면 41권 1호 (2006)부터 48권 4호(2013)까지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에 이르는 논문들이 한번 이상 인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인용이 많이 된 호는 45권 2호(2010)와 47권 3호(2012)인데, 이 두 호의 경우 수록논문 중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었다. 특히 45권 2호에 수록된 논문 한편은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에 걸쳐 매년 3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총 145회 피인용), 47권 3호는 특정 주제를 가진 특별호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OSJ에 게재된 논문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인용되었으며, 특히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과 특별호 등을 통해 인용횟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학술지의 경우, 인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는 테마를 가진 논문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발간 학회지가 원고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OSJ의 인용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OSJ를 가장 많이 인용한 저널은 OSJ이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간하는 또 다른 학술저널인 OPR은 4번째로 OSJ를 많이 인용한 저널이었다. OSJ의 자기인용(8.9%)과 OPR이 OSJ를 인용한 것(2.7%)을 합하면 전체 OSJ의 피인용횟수 중 11.6%를 차지하였다. OPR도 SCOPUS에 등재된 저널로, OPR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널도 OPR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저널이 OSJ이다(<표 13> 참조).

<표 13> OPR을 인용한 저널 현황

2016. 8. 19. 기준

순위	인용한 저널명	발행기관(국가)	인용 횟수	비율(%)	누적 비율(%)
1	Ocean and Polar Research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ea)	118	13.4	13.4
2	Ocean Science Journal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ea)	68	7.7	21.1
3	Journal of Coastal Research	Coast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Inc. (USA)	29	3.3	24.4
	Marine Pollution Bulletin	Elsevier Inc. (England)	29	3.3	27.7
5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Elsevier BV (England)	24	2.7	30.5
합 계			268	30.4	-

\* 비율 및 누적비율은 전체 인용한 저널(290종)의 총 인용횟수 880회에 대한 것임

이러한 사례는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AARL)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ARL은 1970년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이 창간한 학술저널로, 1년에 4회 발간되고 있다. 이 저널은 2009년에 SCOPUS에 등재되었고, 2010

년에 SSCI에 등재되었다. AARL을 인용한 저널을 살펴보면 역시 AARL이며, ALIA에서 AARL과 함께 발행하고 있는 ALJ가 AARL을 4번째로 많이 인용한 저널이다. AARL을 인용한 저널현황은 <표 14>와 같다.

&lt;표 14&gt; AARL을 인용한 저널 현황

2016. 8. 19. 기준

순위	인용한 저널명	발행기관(국가)	인용 횟수	비율(%)	누적 비율(%)
1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Australia)	68	13.0	13.0
2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Elsevier BV (England)	25	4.8	17.7
3	Library Management	Emerald Group Publishing Ltd. (England)	15	2.9	20.6
4	Australian Library Journal	Library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	13	2.5	23.0
5	Reference Services Review	Emerald Group Publishing Ltd. (England)	12	2.3	25.3
	Journal of Documentation	Emerald Group Publishing Ltd. (England)	12	2.3	27.6
합 계			145	27.8	-

\* 비율 및 누적비율은 전체 인용한 저널(192종)의 총 인용횟수 525회에 대한 것임

ALJ의 인용을 분석하면, ALJ를 가장 많이 인용한 저널 역시 ALJ이며, AARL이 다섯 번째로 ALJ를 인용한 저널이다. <표 15>는 ALJ를 인용한 저널 현황이다.

&lt;표 15&gt; ALJ를 인용한 저널 현황

2016. 8. 19. 기준

순위	인용한 저널명	발행기관(국가)	인용 횟수	비율(%)	누적 비율(%)
1	Australian Library Journal	Library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	26	10.1	10.1
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lsevier BV (England)	11	4.3	14.4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place Learning: Concepts, Methodologies, Tool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Association (USA)	11	4.3	18.7
4	Library Management	Emerald Group Publishing Ltd. (England)	10	3.9	22.6
5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Australia)	9	3.5	26.1
합 계			67	26.1	-

\* 담행본

\*\* 비율 및 누적비율은 전체 인용한 저널(108종)의 총 인용횟수 257회에 대한 것임

이 분석결과는 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다른 학술지가 있을 경우 학술지의 인용은 물론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학술지 간에 서로 인용해주는 스태킹(staking)의 우려가 있으며, Thomson Reuters는 이러한 스태킹을 통해 IF를 왜곡시킬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문일경 2015, 61). 따라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용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학술지일 경우,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인용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V. 결 론

학술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는 학술논문의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는 전 세계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며,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요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는 학술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보다 광범위하고 검증된 학술정보를 검색하고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국제학술지의 입장에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는 학술지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학술정보의 이용자들은 또한 학술정보를 생산하기도 하므로,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은 전 세계 학술정보 생산자들에게 저널을 알리고 양질의 원고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학술지는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을 국제학술지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저명 저널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서양 주도의 국제학술계에서 국내발행 국제학술지가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의 등재는 물론 등재 이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OSJ는 이미 SCOPUS와 SCIE에 등재되어 저명한 국제학술지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학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창간 및 발간하여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한 OSJ를 하나의 주요사례로 삼아 그에 대한 상세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OSJ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다른 학술지의 운영에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 연구의 제안은 OSJ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영만 외. 2009. 오픈 액세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학술지 발행기관별 차이 및 학문분야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3(4): 431-449.

김왕준, 윤홍주, 나민주. 2012. 국립대학 교수업적평가 관련규정 비교분석. 『韓國教員教育研究』, 29(1): 143-165.

문일경. 2015. 국제학술지들의 피인용 경쟁의 부작용. 『ie매거진』, 22(1): 61-62.

신은자, 최희윤, 서태설. 2015. 해외 영향력 확산을 위한 국내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9(4): 159-177.

오동근, 여지숙, 박상후. 2015. 기관 발행 국제학술지의 성공요인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2(3): 362-3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lab/sub06\\_01\\_02.do](http://www.kiost.ac.kr/lab/sub06_01_02.do)> [인용 2016. 8. 19].

한종업. 20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EST) 해양과학도서관 : 해양이해 증진과 지식서비스를 위한 해양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 2013(November): 34-39.

Piocuda, Jorge E. et al. 2015. "Trend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Collaboration in U.S. Psychology Journals 1950 - 2010," *Archives of Scientific Psychology*, 3: 82 - 92.

Wang, Shuhua, Hengjun Wang and Paul R. Weldon. 2007. "Bibliometric analysis of English-language academic journals of China and their internationalization." *Scientometrics*, 73(3): 331 - 343.

Wang, Jin and Yuan-qiang Lu. 2009. "Reflection on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surgery journals." *Chinese Journal of Traumatology*, 12(4): 243-246.

Zitt, M1 and E. Bassecoulard. 1998. "Internationalization of scientific journals: a measurement based on publication and citation scope." *Scientometrics*, 41(1/2): 255-27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 Young-Man et al.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Journal Publisher and among the Academic Disciplines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Open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431-449.

Kim, Wang Jun, Hongju Yun and Minjoo Rah.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Faculty Evaluation System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1): 143–165.

Moon, Ilkyeong. 2015. "Side Effects of Competition to be Cited of International Journals." *Industrial Engineering Magazine*, 22(1): 61–62.

Shin, Eun-Ja, Hee-yoon Choi and Tae-Sul Seo.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for Enhancing the Global Influence: An Analysis on Korea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59–177.

Oh, Dong-Geun, Ji-Sook Yeo and Sang-Hoo Park. 2015. "An Analysi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ternational Journal by Institution: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Case of the ETRI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362–375.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Home Page. <[http://www.kiost.ac.kr/lab/sub06\\_01\\_02.do](http://www.kiost.ac.kr/lab/sub06_01_02.do)> [cited 2016. 8. 19].

Han, Jong Yup. 2013. "Ocean Science Library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3(November): 34–39.